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연계 및 지원 안내서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충북대학교병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연계 및 지원 안내서

행복을 잇는 동행

CONTENTS

1.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개
2.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3. 지원 사례
4.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 5 임신 여성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방법



서비스 의뢰 신청

부록

임산부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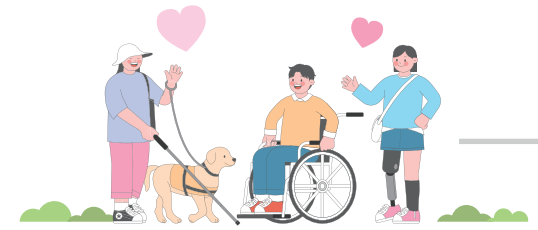
임산부 등록 신청



1.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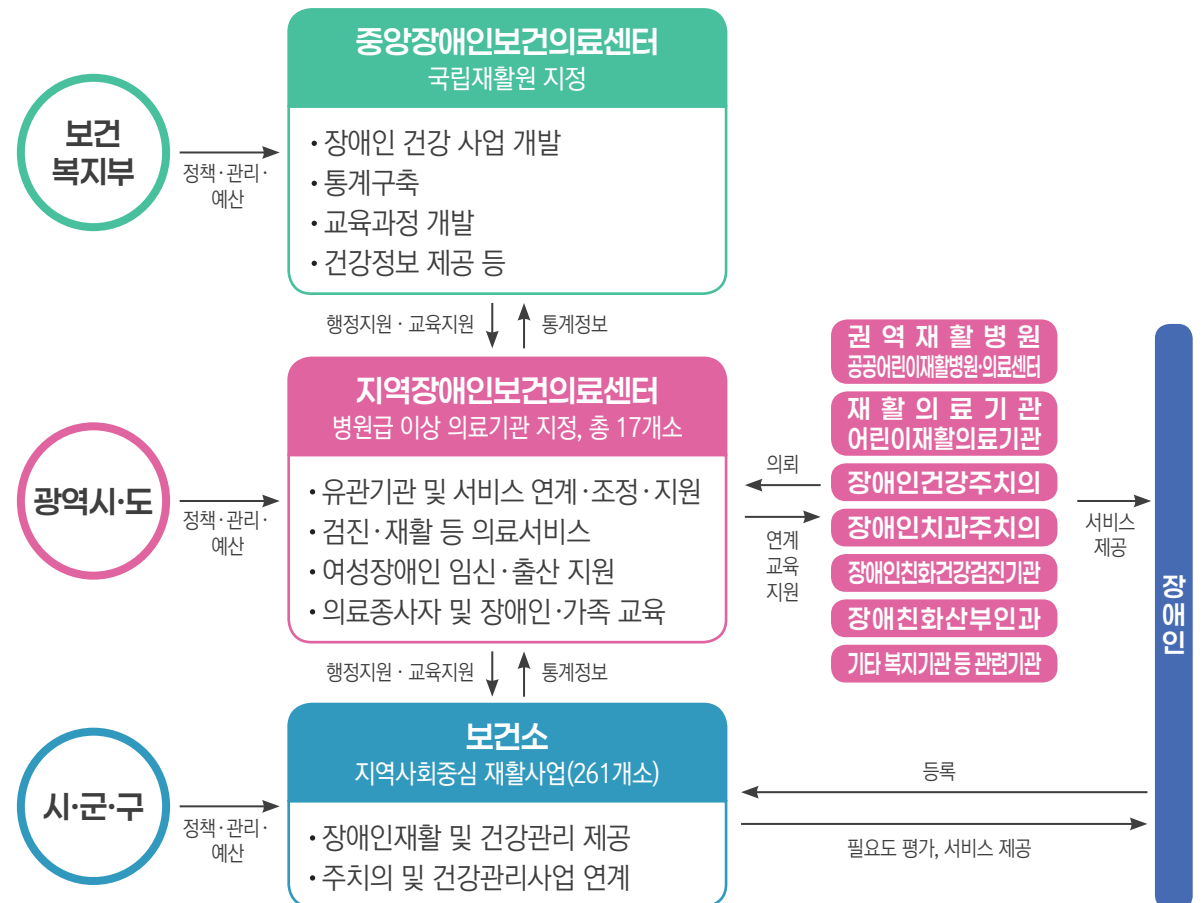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지정으로 지역 장애인에게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1)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건강 증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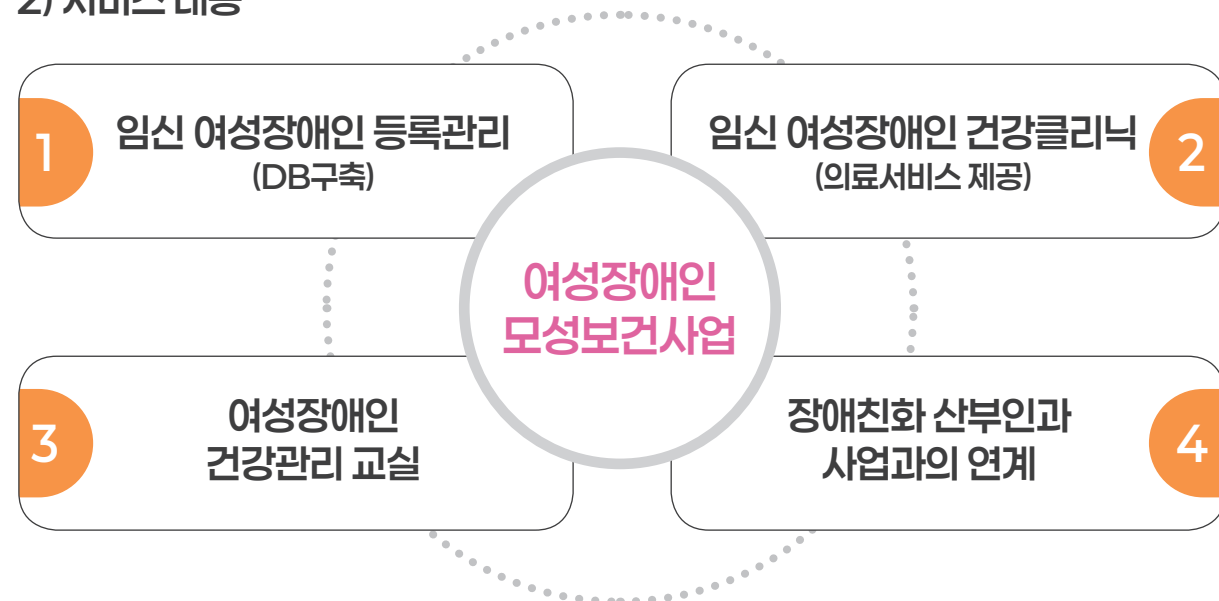


2.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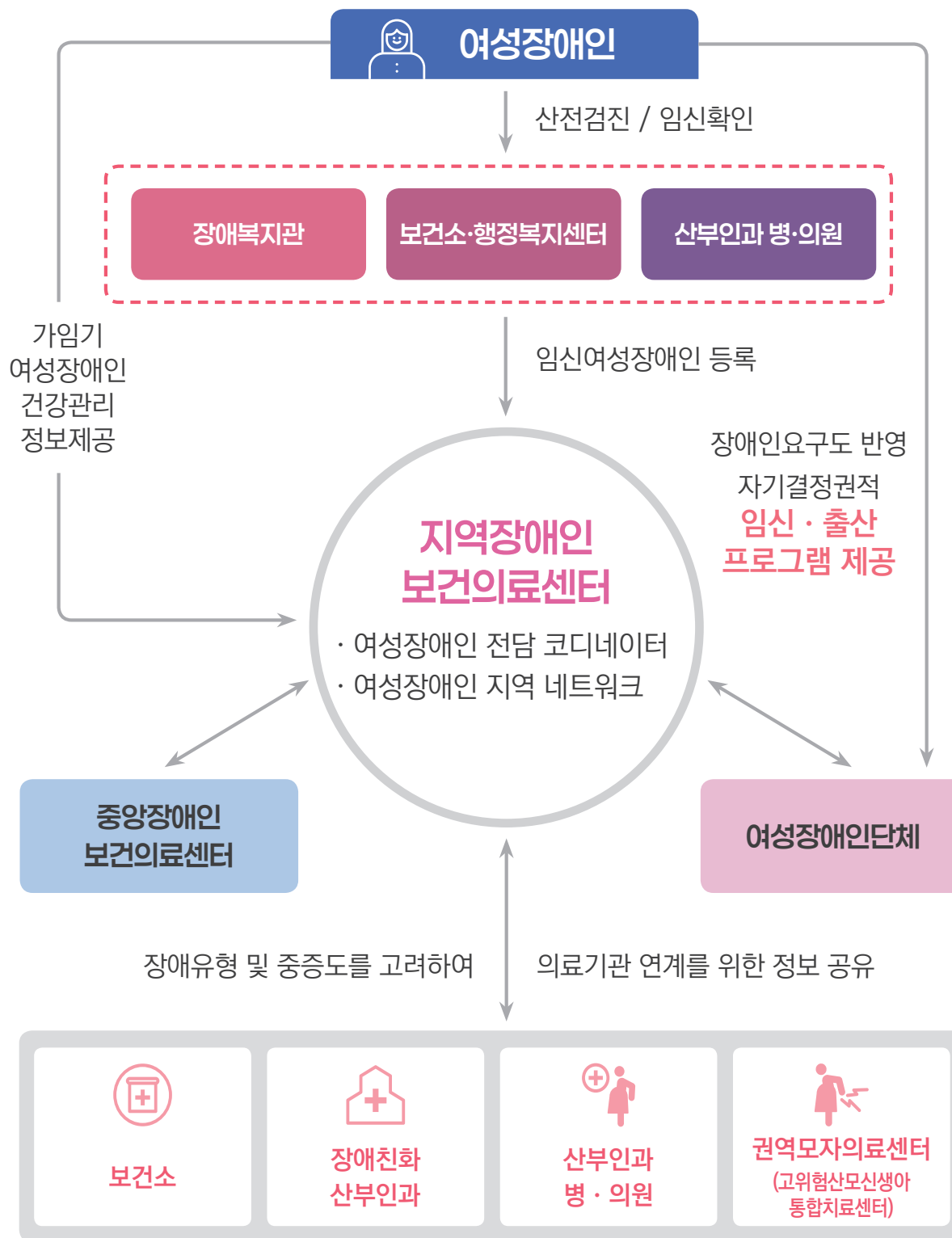
1) 임신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구축)

- 대상** 충청북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준비 및 임신·출산한 여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및 가족
-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 없음
※ 단, 연계된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상담 문의** 전화 (043-269-2709 담당자 직통), 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가능

2) 서비스 내용



3)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사업 제공 체계



2.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4) 사업내용

① 임신여성장애인 등록관리(DB구축)

- 등록 대상 : 임신 진단, 임신,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여성장애인
- 제공 내용
 -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및 중증도, 요구도를 파악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행정복지센터, 산부인과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등과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건강관리 지원

② 임신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 서비스 대상 : 임신 준비, 임신,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여성장애인
- 제공 내용
 - 임신 준비 및 산전·산후 관리를 위한 산부인과 병·의원 여성 건강검진 및 진료 의뢰, 진료 예약, 진료 동행, 타 진료과 진료 연계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 지원
 - 산전·산후 건강관리 전화상담, 가정방문, 임신·출산·육아 책자 및 정기간행물 제공
 -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③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실

- 서비스 대상 : 여성장애인 및 가족
- 제공 내용
 -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1:1 맞춤형 산모 교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청소년기 및 가임기, 중장년기(갱년기), 노년기 건강관리
 - 장애유형별 건강관리 교육: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지적, 자폐) 장애 등

④ 장애친화 산부인과와의 연계 및 협력

- 임신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
 - 임신준비 및 임신·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적절한 산과 및 부인과 진료 제공
 - 임신 여성장애인 및 태아의 건강관리
 -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임신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전문 모자 의료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 평생 건강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
 - 부인과 정기검진, 갱년기 호르몬 치료, 노년기 골다공증 및 비뇨기계 질환 등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및 장애 관련 만성질환 관리 담당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⑤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연도	소재지	종별	기관명	진료예약	장애친화 지원서비스
2021	충북 충주시	종합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043-840-8200	개시



3. 지원 사례



○○○ (22세/지적장애/심한 장애/미혼모/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

- 아빠: 알콜 중독, 병원 입원
- 엄마: 10세 때 가출
- 큰오빠: 행방불명
- 작은오빠: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시도
- 남동생 2명: 시설 거주

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뢰 및 연계 (거주지 이전)

- 초기요구도 : 산전관리기관 지정 및 임신 유지, 산전검사 진료 동행, 분만 준비 등의 의뢰서비스 지원
- 등록/임신주수/분만예정일 23.07.04/24주/23.10.24
- 주요 문제
 - 임신 유지 및 건강관리
 - 주거지 불안정
 - 분만 준비(미혼모, 한부모, 보호자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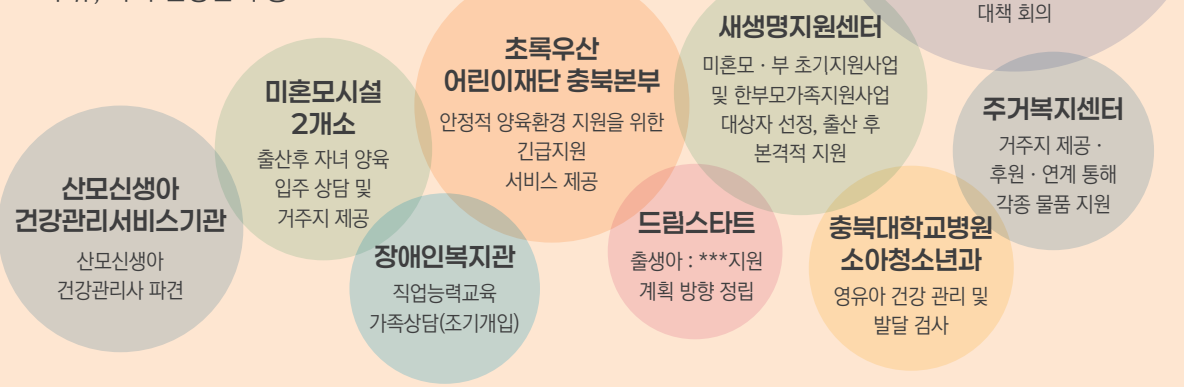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신 여성장애인 건강클리닉 : 14건

- 산전관리기관 지정 및 산전관리 정기검진 동행
- 국민행복카드 분실 후 재발급 위한 은행 방문 동행
- 보건소 모자보건실 임신부 관련 서비스 신청 동행
- 임신부 119 안심콜 등록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연계
- 충북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면회 동행 및 퇴원 시 귀가 동행
-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한부모 지원 신청 동행
- 미혼모시설 견학 및 입주 상담 동행
- 통합사례관리 진행 및 연계

1:1 맞춤형 산모교실 : 4회

- 임신부 영양·위생 건강관리, 분만 준비, 수유, 아기 건강관리 등



4.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1) 장애분류

대분류	주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 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성에 따른 구분
	정신 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2019년 7월 기준으로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장애인의 장애 정도’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함

4.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① 지적장애인

-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IQ(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행동 특성

- 유전적 원인 혹은 후천적 질병으로 인하여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며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움.
- 중증일 경우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고 자해 행동이 빈번할 수 있음.
-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 선택이 미숙하지만 단순히 사회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대체적으로 감정, 의사 표현이 서투르고, 개인 특성에 따라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이해해야 함.
- 개개인의 이해력과 집중력에 차이가 있고, 의사소통 시에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에티켓

- 대화를 나눌 때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 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복잡한 언어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발음을 분명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같이하면 좋음.
-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생활 연령에 맞는 존칭어 사용해야 함.
- 도와줄 때는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지원서비스 신청 목록이나 내역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함께 읽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도 해야 함.



② 자폐성 장애인

-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성 자폐증, 서번트 증후군으로도 분류)



행동 특성

-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 신체적 표현, 자기조절, 사회 적응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 형성이 어려움.
- 특징적으로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때로는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함.
-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음.
- 때로는 앉아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 한다거나, 계속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며 주로 마라톤이나 수영, 단순 작업 같은 동일한 행동 패턴을 선호하고 집중력이 좋은 편임.
- 비장애인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어떤 경우에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



에티켓

- 첫 만남의 경우 먼저 자신을 소개한 후 여기가 어디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리고 실물이나 사진을 이용해 간단히 말하고, 어렵고 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므로 구체적인 단어를 선택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대화 시 주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어야 함.
-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전에 미리 제거하는 편이 좋음.
- 타인의 말을 모르면서 끝 단어만 따라 하는 경우가 있어, 대화를 나눌 때는 말의 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하고 대답을 기다려 주어야 함.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같은 발달장애인을 만날 때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점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

4.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③ 지체·뇌병변장애인

- 신경계, 근골격계에 발생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사람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뇌손상, 뇌성마비,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 절단으로 인해 손가락, 발가락, 팔다리, 몸통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저신장장애, 소아마비, 척추측만과 같은 신체 변형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경우, 관절 이상으로 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



행동 특성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시각, 청각, 언어장애나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음
- 이동 혹은 신체적 활동 능력은 개인마다 다름.



에티켓

-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문을 잡아 주는 것이 팔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 주는 것보다 더 쉽고 문을 잡아 줄 때는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 주어야 함.
- 엘리베이터를 잡아 줄 때도 완전히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주고, 보장구(지팡이,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본 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눌러주어야 함.
-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음. 의사표시 없이 휠체어를 밀게 되면 사고의 위험 있으며, 보장구, 지팡이 등은 사적인 물건이므로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휠체어를 옮겨 놓거나 만지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함.
- 수동휠체어를 밀어줄 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밀어주는 사람이 휠체어의 모양이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니, 이동하는 바닥의 위험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도와주어야 함.
-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안내가 필요함.
- 계단을 이용할 때 난간을 잡도록 하고 내려올 때는 앞에서, 올라갈 때는 뒤에서 지켜보며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도와주어야 함.
-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대개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음.
-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말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대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응을 해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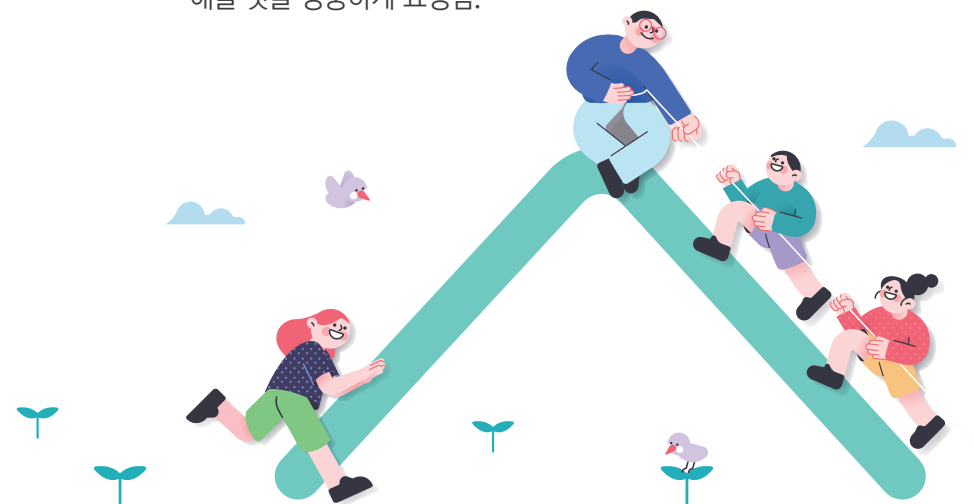
④ 청각·언어장애

-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의 청각 전달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청각장애의 경우, 농과 난청으로 구분되며 전음성 난청, 감각 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 등으로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분류 / 언어장애의 경우,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표현성 언어장애, 수용성-표현성 언어장애, 음성 장애 등)



에티켓

-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우선 수화, 지화, 필담 중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서 소통하기 때문에 자주 보고 눈을 보면서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 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쉬 후 다음 문장을 말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할 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함.
- 대화를 나눌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몸짓 및 얼굴 표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과장된 표정과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음.
- 주소나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명 등 중요 정보는 글로 알려주는 것이 좋음.
- 주로 밝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음.
- 수화통역사를 통한 대화 시 눈을 맞출 때 수화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을 향함.
- 언어장애의 경우 대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말을 하는 것이 힘겨워 보여도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한 뒤 천천히 이야기하고, 대화 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함.



4.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에티켓

⑤ 시각장애

- 시력과 시야의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
(주로 시력과 손상정도에 따라 전맹(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빛을 지각하지 못함), 저시력(교정시력이 0.2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로 남아 있거나 50% 이상 감소한 경우)으로 구분



에티켓

- 우선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본 후에 요청에 따라야 하며 대화할 때는 목소리를 너무 크게 높이지 말아야 함.
-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말을 걸어도 자신에게 말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지 확인하지 못하므로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음.
- 보행을 안내할 때, 안내인의 한쪽 팔을 뺨어 손등에 가볍게 대어주고 팔꿈치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하고 반보 정도 앞쪽 옆에서 걷는 것이 좋음(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팡이 반대편에 서서 안내자의 팔을 내어줌)
- 문이 닫혀진 곳에 있을 때는 문을 열어주거나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주어 직접 열도록 하고 그런 다음 안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하며 회전문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말해 주어야 함.
- 보행 중 계단이 있으면 한 걸음 앞에서 멈추고 계단이 있음을 안내하고,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도 알려주며 혼자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난간에 손을 대어줌.
-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소통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타면 안내견의 상황 판단 능력이 흐트러져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게 좋음.



⑥ 뇌전증 장애

-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주 일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상 기능이 발생하게 되면서 반복적인 발작을 유발하는 신경학적 만성질환



에티켓

- 경련 발작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머리 아래에 폭신한 것을 깔아 줌,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함.
- 중증 발작의 경우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기도 함.
- 의식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청각의 기능은 정상적일 수도 있음.
- 경련이 끝난 후 완전히 의식을 찾을 때까지 혼돈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자 두어서는 안되며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함.
- 경련이 끝났는데도 숨을 쉬지 않거나 수차례 경련이 계속 반복되거나, 다쳤을 때는 119를 불러야 함.



【참고 문헌】

서울시복지재단. (2019).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애 유형별 이해 & 에티켓.” Naver Blog. <https://blog.naver.com/swf1004/221621513177>.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장애 이해를 높이는 소통 가이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5. 임신 여성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방법

• 대상자 확인

임신 확인 및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여성장애인



문 의



043-269-2709 (담당자 직통)



010-3778-2704

• 서비스 의뢰 신청

QR코드 스캔 후 의뢰서를 작성해주시면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안내 및 상담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연계 및 지원 안내서

행복을 잇는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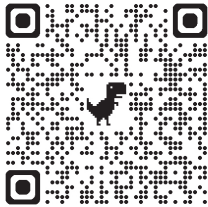
부 록

임산부 서비스 안내

임산부 서비스 안내

세부사업	서비스 목록 * 중복 제공 가능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지원 제공 및 연계 임신 준비부터 임신 분만 후 6개월까지	☐ 건강상담 및 관리 ☐ 장애 유형별 임신·출산 관련 이용 시 산부인과병·의원 의뢰 및 연계, 진료 동행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안내 및 기관 연계 ☐ 임신부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안내	
장애 유형별 1:1 맞춤형 산모 교실 (상담 후 선택 가능) 임신 진단 후부터 임신 분만 후 6개월까지	임신	☐ 장애 유형별 임신 중 내 몸 건강관리 ☐ 임신주수별 변화와 임신 중 영양 관리 ☐ 임신 중 및 산후 우울증 관리 ☐ 임신 중 체조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법 ☐ 장애 유형별 태교법 및 함께하는 남편 교실 ☐ 출산용품 준비하기 및 육아용품 만들기 체험 ☐ 출산 준비 및 출산징후와 분만 방법 ☐ 응급상황 대처 방법
	출산	☐ 산후 관리(우울증 포함) 및 수유(모유, 분유) 지도 ☐ 신생아 돌보기 (목욕, 위생, 영양 관리) ☐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지도 ☐ 월령별 발달과 아기 돌보기 지도
	청각/시각	☐ 청각장애(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의뢰) ☐ 시각장애(큰 글씨, 점자 교육자료 제공 의뢰)
의료·사회·복지 지원 서비스 안내 ☐ 전국 공통 지원 서비스 혜택 및 정보 제공 ☐ 지자체(지역별) 지원 서비스 혜택 및 정보 제공		
제공 방법	☐ 가정방문 (산모 교실 또는 직접 정보 자료 전달) ☐ 센터 방문 ☐ 진료동행 ☐ 전화상담 ☐ 우편전송 (정기간행물 및 정보지)	

※ 문의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담당 269-2709 / 010-3778-2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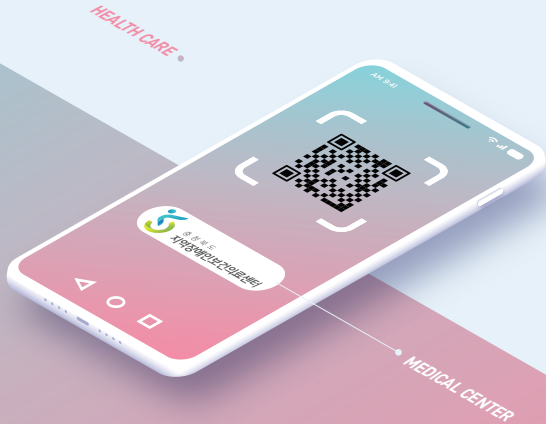


바로 보는 QR 코드 안내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바일홈피
여성장애인 등록 신청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동영상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 리플렛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가이드

※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복제를 금함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주 소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 운 영 시 간 평일 9:00~18:00
- 전 화 043-269-2700, 2709
- 팩 스 043-269-2710
- 인 스타 그 램 cbrhmcpd
- 카카오톡채널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홈 페 이 지 <https://www.cbrh.or.kr>